

아트앤스터디 강좌 <지젝과 그 적들> 2강 : 푸코 대 지젝

마상룡/탈근대철학연구회 공동대표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와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는 한국 사회에서 현실사회주의 사회가 무너지고 1990년대 이후 마르크스의 대안으로서 현대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폭로하는 철학자, 억압과 착취, 지배에 저항하는 사상을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탐구하고 정립한 철학자로 다가왔다. 들뢰즈와 푸코는 진보적 사상을 정립하고 실천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론적 실천적 근거가 되었던 인물이다.

<푸코의 학문적 여정>

학문적 시기	고고학 시기	계보학 시기	윤리학 시기
문제의식	지식(앎)과 진리가 어떻게 참과 거짓의 진리 놀이를 통해 구성되는가를 인식들의 역사적 형성과 변환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권력의 발생과 형성, 그 작용 방식과 효과 즉 권력의 메커니즘을 탐구한다.	주체가 권력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형성하는 방식, 주체화 양식을 탐구한다.
푸코의 이론	지식의 축	권력의 축	윤리의 축

1. 푸코 철학의 문제의식과 구도

* 양운덕의 『미셸 푸코』(살림, 2003)과 양운덕의 「칸트와 푸코 - 푸코의 칸트 읽기」, 한국칸트학회 엮음, 『포스트모던 칸트』(문학과지성사, 2006) 등에서 일부를 요약해 정리함.

1) 새로운 문제들/문제화/문제제기의 구상 :

푸코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초역사적이고 보편 타당한 문제를 변형시켜 ‘서구의 근대적 주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질문한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인간 내부, 선형적 주제에서 접근하지 않고 그 바깥, 주체의 가능 조건에서 접근한다. 새로운 문제 제기는 기존의 문제-답의 틀에 비해 더 완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태를 보는 다른 관점과 사태의 다른 결, 단면, 조직,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정한 문제가 특정한 사고를 경계짓는다. 이것이 가리는 영역에 대해서는 더 올바른 답이 아니라, 다른 문제를 통해 질문하고 답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항상 특정한 답의 경계를 마련한다.

2)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칸트와 푸코의 답변 :

①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순수이성비판) :

서구적 주체는 어떻게 지식의 주체로 만들어지는가(사물에 대한 통제 관계). 특정한 시기의 담론 구성체들이 어떻게 인간의 인식을 마련하고 진리와 오류를 구분하는가(지식의 축, 지식의 고고학).

②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실천이성비판) :

서구적 주체는 어떻게 권력의 주체로 만들어지는가(타자들의 행위 관계). 담론들이 어떤 권력의 작용과 관계맺는가(권력의 축, 권력의 계보학).

③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판단력비판) :

서구적 주체는 어떻게 윤리의 주체로 만들어지는가(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 다양한 시대의 주체들이 어떻게 성(性)적 실천을 통해 자기를 도덕적 존재로 주체화하는가. 도덕 자체가 아니라 선악에 대한 가치 평가가 누구에 의해서 어떤 권력 의지와 관련하여 만들어지는가(니체의 『도덕 계보학』, 윤리의 축, 자기 형성의 계보학).

→ 근대 주체는 근대적 담론 장치와 그것의 권력 작용의 산물이다 ; 역사적 존재론

3) 푸코의 철학 방법론 ; 고고학과 계보학 - 두 가지 분석 양식

푸코는 특정한 시대에 자연스럽게나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적 경계들을 문제삼는다. 이런 경계-태도는 주어진 경계 안에서 그것이 허용하는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따라 사고하고 실천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는 주어진 경계 안에서 그 경계를 '위반'하는 사고

	현대	근대(1800~1950) 니체	고 전 주 의 시 대 (1660~1800) 사드	르 네 상 스 시 대 (1500~1660) 돈키호테
지식의 형식	자기 반성	자기 표상	표상	유사성
동일자/타자	타자→동일자	동일자→타자	타자	동일자
시간/공간	공간/시간	시간	공간	
지배적 문법구조	지시 작용	전이	분절화	명제
지식의 대상	언어	인간/역사	자연	신
실증성	반(反)과학	인간 과학/경험 과학	자연과학	우주지(誌)
생명	정신분석학	심리학/생물학	박물학	자연의 역사
노동	민족학	사회학/정치경제학	부의분석	가치에 관한 지식
언어	언어학	문학/문헌학	일반문법	원전 주석
철학	고고학	인류학	이성주의	신학

<인간 과학의 고고학적 비교표 ; 파멜라 작성>

와 실천을 모색하는 '비판적' 작업을 모색한다. 푸코에게 비판이란 경계를 분석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이 경계가 어떤 문제들과 그것에 알맞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정상적인 구조를 만드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일정한 경계, 문제 제기가 지닌 초역사적인 보편성의 가면을 벗긴다. 그는 이런 비판적 작업을 위해 니체가 서구 이성과 도덕에 대해 비판한 전략을 이어받은 고고학적이며 계보학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그의 고고학적 탐구는 인간 과학에서 담론의 출현을 규제하는 무의식적 규칙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그래서 그는 의식과 '사유되지 않은 사유'의 심층들을 들여다보고 모든 사유의 관계들과 근원을 주시하면서 언어 구조의 한계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반대로 계보학적 분석은 인간 과학의 출현과 사회적 실천으로 구체화된 인간 과학의 존재 조건을 다룬다. 그래서 담론에 대한 다양하고 엄격한 분석으로부터 담론의 형성을 조건지우고, 제한하며 제도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작업으로 그의 관심을 이동한다. 언표 활동에 미친 권력의 영향, 담론적 제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1) 고고학적 방법 ;

고고학은 archive(문서고)를 기술(記述)하는 것. 고고학적 분석의 목적은 언표 체계의 기술, 담론 형성의 기술.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지식과 이론들이 가능한 조건, 바탕을 찾으려는 연구, 즉 지식이 어떤 질서를 이론 공간에 따라 구성되었는지를 추적. 지식들을 조건짓고 조직하는 원리로서의 에피스테메(= 역사적 아프리오리). 따라서 고고학은 담론들의 형성과 변형을 기술하고 ‘담론의 출현 조건, 불완전한 연결 고리, 뚜렷한 불연속성’을 드러낸다.

푸코는 고고학을 관념의 역사인 사상사(思想史)와 비교한다.

<고고학적 분석과 사상사의 네 가지 차이점>(『지식의 고고학』에서)

① **새로움의 지시** ; 사상사는 새로운 것/ 낡은 것, 미공개된 것/ 반복된 것, 독창적인 것/ 전통적인 것과 같은 두 개의 가치 영역을 가지고 담론의 분야를 다루며, 관성, 축적, 침전의 역사(발생-지속-총체성)와 병행하여 혁신의 역사를 구성한다. 이에 반해 고고학은 담론의 가능 조건, 담론적 실천의 규칙에 관심을 둔다. 독창성/ 평범성, 혁신/ 전통과 같은 개념은 언표 규칙의 분석에만 이용될 뿐이다.

② **모순의 분석** ; 사상사에서 모순은 정합성을 숨기고 있는 표층 현상이거나 담론의 출현을 위해 만들고 있는 원칙으로 간주된다. 반면에 고고학에서 그것은 극복되거나 해명되어야 할 숨겨진 원칙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분석 대상, 즉 기술되어야 할 대상이다.

③ **비교적(比較的) 기술(記述)** ; 사상사는 비교에 기초하여 문화적 연속성과 총체성의 특징을 해명하려는 동시에 인과성의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한다. 그러나 고고학은 기본적으로 담론의 형성을 기술하고 개별화한다. 결과를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화한다.

④ **변형의 도표화** ; 변화에 대한 이해의 차이. 전통적인 사상사는 최소한 시간적 계기(繼起)나 연속(連續)의 현상을 분석하여 담론의 역사적 전개를 기술한다. 그러나 고고학은 역사의 통시성을 문제삼지 않고 공시(共時)성에만 관심을 집중한다. ‘의식의 흐름’이나 ‘언어의 흐름’이라는 개념에만 몰두해온 사상사와 달리 고고학은 단절, 균열, 간격, 새로운 형식의 긍정성, 갑작스런 재분배 등을 사상사보다 훨씬 더 잘 드러낸다.

(2) 계보학적 방법 ;

1968년 5월 혁명 이후의 방법론. 1970년 콜레쥬 드 프랑스의 교수 취임 강연글 「담론의 질서」에서부터이다. 계보학은 각 국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서 출발하여 자명하다고 여기는 것들의 기초를 탐색하여,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관념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드러낸다. 특정한 시기의 특수한 ‘문제 제기’가 특정한 사고와 실천이 가능한 경계를 마련하고, 그것이 마치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런 보편성은 특정한 시기적 제약을 갖는 것이고, 그 필연성의 범위는 그 시대를 넘어서지 않는다. 즉, 보편성과 필연성이 역사화되면서 우연적인 것임이 밝혀진다. 푸코는 이런 분석을 통해 현재의 개인들을 만든 필연성에 들어 있는 우연성을 지적하고, 그로부터 개인의 존재와 행위, 사고를 넘어서 수 있는 자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계보학의 세 가지 특징>(1971년에 발표된「니체, 계보학, 역사」에서)

① **현재의 역사** ;

계보학은 근본적인 관념이나 사건을 본질이나 진리로 인식하려 하지 않는다. 계보학적 태도는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원천으로서의 기원(Ursprung)을 추구하는 태도와 대립된다. 이것은

대상의 형이상학적 본질, 자기 동일성, 불변적 형식을 찾으려는 것이다. 반면에 계보학은 ‘유래(Herkunft)’와 ‘발생(Entstehung, 출현)’을 추적한다(니체 ; “사실은 없다. 모든 것이 해석이다.”).

② 반(反)과학주의 :

과학적 담론의 권력 효과에 반대하는 투쟁으로서의 계보학. 계보학은 지식에 대한 반란이요, 지식에 대한 비판이다. 계보학적 연구는 “주로 과학의 내용, 방법이나 개념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같은 사회 내에서 조직적인 과학적 담론의 제도와 기능에 연결된, 집중화되고 있는 권력의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는 지식에 대한 반란이다.” 그것은 지엽적이고 사소한 지식을 소생시킨다. 그것은 과학이 지닌 총체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목적을 거부한다. 국지적 비판이 지니고 있는 미시적 관점은 이론을 우선하기보다는 삶과 현실 자체를 우선시한다. 따라서, 비판은 거시적 이론 체계에 대한 미시적 지식의 반란을 지원한다. 결국 비판으로서의 계보학은 총체적이며 전체주의적인 담론에 대한 국지적 비판이자 거시적인 과학 이론의 황포에 반란하는 반과학 운동인 셈이다.

③ 반(反)인간주의 :

설명적 인간주의 비판(아닌 것의 아닌 것. 정상인=광인이 아닌 것, 부정의 부정=긍정적 부정), 인식론적 인간주의 비판(지식의 근거는 준경험적 조사 방법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근거 중심주의), 이데올로기적인 인간주의 비판(사회적 실천의 이데올로기가 된 인간주의의 사회적 기능)

4) 주체화의 문제 설정 ; 자유의 실천으로서의 자기 윤리 - 자기에의 배려, 자기 훈련

문제화(problematisation, 문제 설정, 문제틀) ; 어떤 무엇을 참과 거짓의 진리놀이 속으로 끌어들이면서, 그것을 사유의 대상으로 구성시키는 담론적, 비담론적 실천의 총체를 가리킨다. 문제화는 ‘인간 존재’가 어떻게 해서 자신을 하나의 주체이자 객체로서 구성시키는지를 탐구한다. 문제화는 주체의 대상화 혹은 주체화이다.

동일자로서의 선형적 주체의 개념에 입각한 기존의 분석들은 기본적으로 인식의 대상과 주체 등을 모두 일종의 소유 가능한 ‘실체’로 바라봄으로써 인식의 주체, 인식의 객체, 인식 행위 자체를 분리시켰다. 이런 주체의 개념은 소유 가능한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지식, 권력, 윤리의 개념을 탄생시켰다. 이런 주체성 형식은 두 개의 이중적인 구속, 즉 인간이 파편화되는 개인화와 오직 하나의 부품으로만 취급받는 전체화의 구속을 받고 있다. 이 두 개의 동시적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주체화의 양식을 창안해야 한다.

2. 푸코의 주요 개념들

(1) 생체권력(biopower) : 개인의 ‘몸/신체(body)’에 작용하여 몸과 정신을 일정한 형태로 규율(discipline)하여 무언가를 만들어내면서 보이지 않게 억압하는 미시적 권력을 지칭한다. 국가 기구나 사회 제도 등을 통해 작용하는 비교적 가시적인 억압적 힘을 거시적 차원의 권력(국가권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거시 권력은 미시적 권력관계의 가시적인 효과나 결과이다.

*‘계보학(genealogy)’은 특정한 시기에 일반화된 지식이나 권력, 혹은 지식과 권력의 구성물

들이 어떻게 다양한 갈래를 형성하고 변환되게 되었는지, 즉 지식이나 권력의 발생 및 변환의 과정과 형식을 탐구하는 방법이다. 지식이나 권력의 기원이나 근저를 추적하다 보면, 보편적인 진리나 불변의 사실이 자명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관점의 해석과 이로 인한 지식과 권력의 구성물이 다양한 발생해서 가지쳐온 역사적 구성물들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사물이나 역사의 보편적 본질을 상정하는 목적론적이고 관념론적인 역사 해석을 거부한다.

(2) 실존의 미학 :

한 개인이 권력에 예측되는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며 자신의 삶을 예술 작품처럼 완성해나가는 삶의 방식을 추구해가는 것을 말한다. 주체의 자기 형성의 방식, 즉 주체화의 방식이다. 푸코는 저마다 자기 삶의 가치와 방향을 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통해 이전의 자기에게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다르게 변형하는 주체화 방식을 ‘에토스(ethos: ethics:윤리학)’라고 한다. 이는 삶을 미학적 가치를 지닌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신중하고도 자발적인 실천으로서 ‘실존의 기술, 자기의 테크닉, 자기의 실천’의 작업이다. 이러한 실천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욕망을 억압이 아니라 쾌락의 활용을 통한 자기 지배와 배려로서의 자기 만들기이다.

(3) 『광기의 역사』에서 광기(狂氣)의 개념 :

르네상스 시기의 광기- 인간의 중요한 능력으로 여김. 중세에도 인간의 신적인 능력, 신의 계시를 받는 독자적 능력으로 봄.

고전주의 시기의 광기-광인으로 취급하고 배제의 대상으로 악과 결부시킴 18세기말까지는 착오에 함몰되어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광인으로 간주했다.

근대의 광기-정신병리학으로 비정상, ‘정신착란(탈이성상태)’로 분류함. 19세기 정신의학에서는 망상을 끝까지 고집하는 완강하고 완고한 의지의 소유자가 광인이다./ 광기를 배제하는 이성중심주의라는 광기.

3. 지젝의 푸코 비판

1. 푸코와 들뢰즈의 공통된 문제점은 무엇인가

전면적 도착의 철학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가 바로 그런 철학자일 들뢰즈 말이다. 다시 말해서, 들뢰즈의 ‘외디푸스적’ 정신분석에 대한 비판은 히스테리에 대한 도착적 거부의 전형적 사례이지 않은가? (‘억압’의 병리적 결과들을 인정하면서도, 상징적 권위 밖에는 정신증적 공백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억압’은 문화적 진보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정신분석가처럼) 상징적 권위에 대한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는 히스테리 주체에 반대하여, 도착증자는 상징적 권위의 바로 그 기반을 침식시키고 선-상징적인 리비도적 흐름의 다중적 생산력을 전적으로 지지함에 있어 그 극단까지 나아간다……. 물론 라캉에게 이런 정신분석의 ‘반-외디푸스적’ 근본화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피해야만 할 듯의 바로 그 모델이다: 현존하는 권력의 배치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짓된 전복적 근본화의 모델, 다시 말해 라캉에게 철학자의 ‘근본성’은, 일체의 전제들에 대한 철학자의 겁 없는 물음은 거짓된 위반적 근본성의 모델이다.

도착적 철학자가 한 명 있다면 그가 바로 그런 철학자일 푸코에게 금지와 욕망의 관계는 순환적이며, 절대적 내재성의 관계이다: 권력과 저항(대항-권력)은 서로를 전제하고 생성한다.

즉 부정한 욕망을 범주화하고 규제하는 바로 그 금지 조치가 사실상 그런 욕망을 생성한다. 성적 유혹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피해야만 하는 상황들을 상세히 기술하는 가운데 어떻게 유혹이 작동하는가(단순한 미소, 눈짓, 방어적 손동작, 도움 요청 등이 어떻게 성적 암시를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범한 지식을 드러내는 그 전설적 인물인 초기 기독교의 금욕주의자를 생각해 보면 된다. 여기서 문제는, 훈육적 권력 기제의 힘이 행사되는 바로 그 대상을 그 기제 자체가 생산한다. (주체는 권력에 의해 억압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 이런 압제의 산물로서 출현한다)고 주장한 이후에 [중략]

권력에 대한 저항의 이와 같은 절대적 연속성으로는 권력에 대한 유효한 저항-즉 '게임의 일부'이지 않으며, 오히려 주체로 하여금 초기 기독교로부터 정신분석에 이르기까지 실행되어온 훈육적/고백적 권력 양태에서 면제된 자리를 맡을 수 있도록 해 줄 저항-을 토대짓기에 충분치 않다는 점을 푸코 스스로가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푸코는 그와 같은 예외를 위치시킬 곳을 고대에서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쾌락의 활용'이나 '자기 배려'라는 고대 개념들은 아직 보편적 법에 대한 지칭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푸코의 마지막 두 저작(『쾌락의 활용』, 『자기 배려』)에서 전개된 고대의 이미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환상적이다. 즉 성욕 없는 쾌락들의 상징적 법/금지에 대한 그 어떤 참조도-가장 금욕적인 판본에서조차-필요로 하지 않는 훈육에 대한 환상, 권력과 저항의 악순환을 깨고 나오려는 시도에서 푸코는, 범죄를 규정하는 보편적 도덕 질서가 부과한 절차로서의 훈육이 아니라 자기-형성적 훈육이 존재하는 '타락 이전의' 상태에 관한 신화에 의지한다. 이런 환상적 너머에서 우리는 그 이후의 것과 동일한 훈육적 기제들을 단지 상이한 양태로 만날 뿐이다. [중략] 다시 말해서 기독교 이전의 고대의 자기Self에 대한 푸코의 기술은 권력과 저항이 겹쳐지는 타락 이후의 권력 관계들에 대한 그의 냉소적 기술에 대한 낭만적이고 소박한 필수 보충물이다.¹⁾ 물론, 앞서의 비판에서 우리는 『감시와 처벌』 및 『성의 역사』 제1권에 나오는 권력과 저항이라는 특별히 푸코적인 개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두 책에서 권력 개념은 초기 기독교에서 형성된 훈육-고백-통제 절차에 제한되어 있다. 후기의 대담들에서 푸코가 권력과 대항-권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감지할 수 없도록 지형을 변경하며, 일종의 니체적인 권력의 일반 존재론으로 이동한다. 권력은 모든 곳에 있으며 모든 것이다. 권력은 우리가 숨쉬는 바로 그 공기이며, 우리 삶의 바로 그 재료이다. 이와 같은 권력의 일반 존재론은 또한 권력의 '주름'으로서의 상이한 주체 개념을 내포한다. 이 주체는 억압적 권력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다리면서도 사실상 그것에 의해 구성된 자기Self가 더 이상 아니다.

(지젝, 『까다로운 주체』, 이성민 옮김, 401~403쪽)

☞ 푸코의 환상은 사회규범적 훈육에 대한 반대물로서 자기형성적 훈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억압도 없고 금지도 없는 훈육에 대한 환상이다.

2. 실존의 미학, 푸코의 윤리는 오늘날 적절한 것인가

바로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우리는 라캉이 주인(의 담론)이라 부르는 것의 논리를 파악해야 한다. 그것의 역할은 정확히 균형을 도입하는 것이며, 과잉을 규제하는 것이다. 전자본주의적 사회들은 지배적인 담론이었던 한에서 초자아에 고유한 구조적 불균형을 아직은 지배할 수 있었다. 미셸 푸코는 마지막 저작들에서 어떻게 고대 주인이 자제와 '적절한 조치'의 윤리를 체

1)

현했는지를 보여주었다. 즉 전자본주의적 윤리 전체는 인간 리비도 경제 고유의 과잉이 폭발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와 더불어 주인의 이 기능은 중지되며, 초자아의 악순환이 자유롭게 회전한다.

(지젝,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이성민 옮김, 404쪽)

☞ 자본주의 이전 시대는 주인담론의 시대이다. 자본주의 이후의 시대는 주인(자본)이 초자아로 기능하는 사회로서 구조적 불균형과 죄책감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히스테리 담론과 대학담론의 시대이므로 자본주의적 환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식의 결핍과 틈으로서의 사건과 실재를 강조해야 한다.

2. 생체권력의 작동 속에서 저항을 어떻게 사유하는가 : 주체화 방식

훈육하기와 통제하기에 관한 푸코의 요점은, 그런 조치들이 통제하고 진압하려 하는 대상이 어떻게 이미 그것들의 결과인가(범죄에 관한 법적 조치들이 그것들 자체의 범죄적 위반 형식들을 낳는다 등) 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그런 훈육적 조치들에 저항하고 그 손아귀를 벗어나려 하는 바로 그 주체가 자신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에서 그런 조치들에 의해 낙인찍혀 있으며 그로부터 형성된다. 푸코의 궁극적 사례는 ‘노동 해방’을 위한 19세기 노동자 운동이었을 것이다. 폴 라파르그의 『게으를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초기의 자유주의적 비판들이 이미 지적했던 것처럼, 스스로의 해방을 원했던 노동자는 훈육적 윤리학의 산물이었다. 즉 자본의 지배를 제거하려는 바로 그 시도 속에서 그는 완전히 자기 자신의 주인인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그 결과 자기 자신에게 저항할 수 없는 노릇이므로 저항할 권리를 잃게 되는 등의) 훈육된 노동자로서 스스로를 확립하고자 했다. 이 층위에서 권력과 저항은 사실상 치명적으로 서로를 포용하고 있다. 저항 없이는 어떠한 권력도 없으며(권력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손아귀를 벗어나는 어떤 X가 필요하며), 권력 없이는 어떠한 저항도 없다(권력은 억압된 주체가 권력의 지배에 저항하여 얻고자 하는 바로 그 핵심을 이미 형성하고 있다).

그리하여, 개인들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권력 메커니즘을 재분절화-재의미화-전치할 수 있는 길을 푸코가 『성의 역사』 제1권에서 열어놓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오도된 것도 없다. 푸코의 강력한 논증이 지닌 일체의 요점과 힘은 권력에 대한 저항들이 바로 그 저항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모체에 의해 생성된다는 주장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생체권력biopower’이라는 그의 개념의 정확한 핵심은, 훈육의 권력 기제들이 개인적 신체를 관통함으로써, 그리고 ‘주체화의 층위’(즉, 어떻게 개인들이 자신들의 곤경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주체화하는가, 어떻게 그들이 자신들의 실존 조건들에 관계하는가의 문제설정 일체)를 우회함으로써 어떻게 개인들을 직접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가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이런 주체화를 주체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비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의 전체 요점은, 만약 사회적 훈육과 종속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우회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성의 역사』 제2권부터) 그는 주체화라는 바로 그 추방된 주체로 어쩔 수 없이 되돌아온다. 어떻게 개인들이 자신의 조건을 주체화하는가, 어떻게 그들이 그것에 관계하는가-혹은 알튀세르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그들이 훈육적 국가장치들에 사로잡힌 개인들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호명된 주체들인가-라는 주체로 말이다.

(지젝, 『까다로운 주체』, 이성민 옮김, 404~406쪽)

☞ 주체화, 실존의 미학, 자기형성

- 훈육적 권력이론의 역설

고백적 자기 조사(調査)가 성욕의 새로운 형태들을 발굴해내는 것뿐만이 아니다-**고백적 활동 그 자체가 성욕화되며, 그것 자체의 만족을 낳는다**: ‘억압적 법’은 그것이 억압하는 리비도에 외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억압적 법은 억압이 리비도적 활동이 되는 한에서 억압한다. [중략]

요컨대 성욕을 훈육하고 규제하는 담론에 대한 푸코의 설명이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권력 기제 그 자체가 성애화되는, 즉 그것이 ‘억압’하고자 하는 것에 의해 더럽혀지는 그 과정이다. 유혹과 싸우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유혹을 열거하고 범주화하는 금욕적인 기독교 주체가 실제로는 자신이 싸우고 있는 그 대상을 증식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오히려 요점은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 채찍질하는 금욕적 수행자가 어떻게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바로 그 행위 속에서 성적 쾌락을 발견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작동하는 역설은, 훈육적 권력 메커니즘에 대한 저항을 존재론적으로 토대지을 만한 곳으로서 미리 존재하는 어떠한 실정적 신체도 없다는 바로 그 사실이 유효한 저항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푸코 및 ‘후기-구조주의자들’ 일반에 대한 표준적인 하버마스주의자의 반박에 따르면, 그들은 우연적인 역사적 맥락이 면제된 어떠한 규범적 기준이라도 부인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권력 체계에 대한 저항에 토대를 부여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한 푸코적 대항-논변은 ‘억압적’ 훈육 메커니즘들 자체가, 그것들의 대상 속에서 어떤 잉여를 산출하는 한에서, 저항을 위한 공간을 열어 놓는다는 것이다. 비록 어떤 여성적 본질(영원한 여성에서 보다 최근의 여성적 글쓰기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지칭이 남성적인 상징적 질서에 대한 여성들의 저항을 토대짓는 것처럼 보이기 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지칭은 여성성을 어떤 미리 주어진 기반으로서 굳혀놓으며, 남성적 담론 기제는 그 위에서 작동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저항은 선-상징적 기반이 상징적 침입에 대항해서 벌이는 저항에 불과하다. 하지만 여성성을 봉쇄하고 범주화하려는 가부장적 노력 그 자체가 저항의 형식들을 생산한다고 하게 되면, 더 이상 기저의 기반을 위한 저항이 아닌, 억압적 힘을 넘어서 과잉 속에 있는 능동적 원리로서의 저항을 위한 공간이 열린다.

(지젝, 『까다로운 주체』, 이성민 옮김, 406~408쪽)



-성욕과 그것의 훈육적 통제 간의 관계에서 헤겔적인 자기-지칭적 전회가 일어난다. 잉여향락.

-성욕을 규제하는 담론의 권력 자체가 역설적으로 권력이 억압하고자 하는 것에 감염되어 성적 쾌락을 규제하는 과정 자체가 성애화된다.

-현존하는 권력 체계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만한 실정적인 신체가 없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유효한 저항을 가능하게 한다.

-‘억압적’ 훈육 메커니즘 자체가 억압하는 대상 속에서 억압할 수 없는 어떤 잉여를 산출하기 때문에 저항의 공간이 열린다.

-예컨대, 여성성을 억압하고 포획하려는 가부장적 노력 자체가 그것을 와해시킬 만한 저항의 형식들을 생산하게 되고 그 속에서는 남성성의 상징적 침입에 대한 여성적 기반을 수호하려는

소극적 저항이 아니라 남성적 억압기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동적 저항이 가능한 공간이 열리게 된다.

3. 식민주의 지배에 대한 저항을 통한 민족 정체성의 형성의 사례

:지식-권력 담론에서 적대의 결여, 푸코의 주체 개념의 문제점

유럽의 제국주의적 모형에 저항하는 바로 그 제스처를 통해 그 모형을 반복하도록 피식민지인들을 운명짓는 이 논변은 유럽중심적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정반대로 해석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전의 인종적 정체성의 어떤 정수를 참조하면서 제국주의적 유럽중심주의에 대한 저항의 토대를 마련한다면, 우리는 근대화에 저항하는 희생양의 자리를, 제국주의적 절차들이 가해지는 수동적 대상의 자리를 자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야만적인 제국주의적 개입이 우리의 자기폐쇄적인 예전의 정체성을 교란시키는 그 방식으로부터 결과하는 어떤 과잉으로서 우리의 저항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위치는 훨씬 더 강고해지는데, 왜냐하면 저항의 토대는 제국주의 체계의 내속적 동학에 있다고-즉 제국주의 체계 그 자체가 자신의 내속적 적대를 통해 자신의 사망을 가져올 힘들을 활성화시킨다고-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상황은 여성주의적 저항의 토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상황과 유사하다. 만약 여자가 ‘남자의 증상’이라면, 즉 가부장적인 상징적 질서의 내속적 적대가 등장하는 지점이라면, 이는 여성주의적 저항의 범위를 결코 제약하지 않으며 오히려 한층 더 강고한 폭발력을 제공한다.) 혹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권력에 대한 저항은 (권력 체계의 내속적 동학에 의해 생성된다는 의미에서) 권력 체계에 내속적이며 내재적이라는 전제는, 모든 저항은 미리 정해져 있으며 권력이 그 자신과 벌이는 영원한 게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결론으로 귀결되어야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핵심적 요점은 증식 효과를 통해서, 저항의 과잉을 생성하는 것을 통해서, 체계의 내속적 적대 그 자체가 체계 자신의 궁극적 몰락으로 이어질 과정을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와 같은 적대 개념이야말로 푸코가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즉 모든 저항은 권력의 체계에 의해 생성된다(‘정립된다’)는 사실로부터, 권력에 대한 저항의 이와 같은 절대적 내재성으로부터, 그는 저항이란 사전에 정해진 것이며 따라서 체계를 심각하게 침식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서 그는 체계 그 자체가 그 내속적 불일치 때문에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그리하여 체계의 통일성과 자기 재생산 능력을 폭파시키는, 과잉적인 어떤 힘을 탄생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고 만다. 간단히 말해서 푸코는 원인을 벗어나며 원인보다 더 커지는 어떤 결과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권력에 대한 저항 형태로서 출현하고 그런 것으로서 권력에 절대적으로 내속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보다 커져서 그것을 폭파시키는 어떤 것의 가능성을 말이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철학적 요점은, 이것이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말하는 ‘결과’ 개념의 근본적 특징이라는 것이다. 결과는 자신의 원인을 ‘취소’시킬 수 있다. 결과는 존재론적으로 자신의 원인보다 ‘더 높은’ 것일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권력의 위반을 언제나-이미 포함하고 있는, 즉 권력을 벗어난다고 주장되는 것을 언제나-이미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을 에워싸는 권력’이라는 푸코적 개념을 역전시키고만 싶다: 권력의 메커니즘은 자기 자신조차도 통제할 수 없으며 자신의 바로 심장부에 있는 외설적 돌기에 의존해야만 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라면 어쩔 것인가? 다시 말해서: 권력의 통제력을 유효하게 벗어나는 것은 그것이 지배하려 하는 외적 권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 자체

의 작동을 지탱하는 외설적 첨가물이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푸코는 적절한 주체 개념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주체란 정의상 자신의 원인보다 과도하며, 그런 것으로서 그것은 성욕의 억압을 억압적 조치들 그 자체의 성욕화로 역전시킴과 더불어 출현한다. 푸코의 이론적 체계의 이러한 불충분성은, 초기의 『광기의 역사』에서 이미 두 개의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견해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알아볼 수 있다. 즉, 광기는 그 자체로 존재하며 오로지 이차적으로만 담론의 대상이 되는 어떤 현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것에 대한 다양한(의학적, 법률적, 생물학적……)담론들의 산물이라는 견해, 그리고 이런 담론들에 의해 부과된 지배로부터 광기를 ‘해방’시켜야 하며 ‘광기가 스스로 말하도록’ 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견해.

(지젝, 『까다로운 주체』, 이성민 옮김, 410~412쪽)

- 민족주의는 담론의 산물인가, 그 이상인가

주체가 그 존재를 (다른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것을) 믿는 한에서만 ‘있는’ 존재자의 이 역설적 실존은 이데올로기적 원인/대의들causes 고유의 존재 양태이다. ‘정상적인’ 인과적 질서는 여기서 역전되는데, 왜냐하면 원인 그 자체가 그것의 효과들(그것이 고무시키는 이데올로기적 실천들)에 의해 산출되기 때문이다. 의미심장하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라캉과 ‘담론적 관념론’의 차이는 가장 강력하게 출현한다. 라캉은 (민족적 등의) 원인을 그것을 지칭하는 담론적 실천들의 수행적 효과로 환원하지 않는다. 순수한 담론적 효과는 원인 고유의 유인력을 강제할 만한 충분한 ‘실체’를 갖지 않는다. 원인이 그 실정적 존재론의 일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추가되어야 하는 그 이상한 ‘실체’에 대한, 정신분석이 인정하는 그 유일한 실체에 대한 라캉적 용어는 물론 **향유**이다(라캉은 이를 『앙코르』에서 명시적으로 진술한다). 민족은 민족 특유의 **향유**가 일단의 사회적 관행들 속에서 계속해서 구현되고 도한 이 관행들을 구조화하는 민족적 신화들을 통해 계속해서 전수되는 한에서만 **실존한다**. 따라서 ‘탈구조주의적’ 방식으로 민족은 생물학적이거나 초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우연적인 담론적 구성물이며 텍스트적 관행들의 과잉결정된 결과물임을 강조하는 것은 오도적이다. 그와 같은 강조는 담론적 존재자-효과로서의 민족이 그 존재론적 일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현존해야만 하는 향유의 어떤 **실재적**, 비담론적 중핵의 잔여를 간과한다.

그리하여 민족주의는 향유가 사회적 장 속으로 분출하는 특권화된 영역을 제시한다. 민족적 원인은, 궁극적으로, 어떤 주어진 종족 공동체의 주체들이 자신들의 향유를 민족적 신화를 통해 조직하는 방식과 같다. 따라서 종족 긴장에 걸려 있는 것은 언제나 민족적 사물의 소유이다. 우리는 언제나 ‘타자’에게 잉여향유를 전가한다. 즉 그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망쳐놓음으로써) 우리의 향유를 도둑질하기를 원하고/거나 어떤 은밀한 도착적 향유에 접근한다. 요컨대 ‘타자’에게 실제로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그 무엇이든 그가 자신의 향유를 조직하는 그 특유의 방식이며, 이 방식에 들인 있는 바로 그 잉여, ‘과도함’이다.

[중략] 타자에게 향유의 도둑질을 전가함으로써 우리가 은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 도둑질해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결코 소유한 적이 없다는 외상적 사실이다. 결여(‘거세’)는 기원적이며, 향유는 ‘도난당한’ 것으로서 스스로를 구성한다.

(지젝,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이성민 옮김, 389~392쪽)

☞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즐기지 못하는 것으로서의 사물에 대한 향유가 있다. 이는 주체의 본

래적인 결핍(거세)을 나타낸다. 하지만 주체는 이를 타자가 훔쳐가서 자신이 더 이상 향유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향유의 상실을 타자(희생양)에게 책임전가를 하면서 이를 욕망하게 된다. 이는 전근대적 생활공동체에게 고유한 내속적 적대를 우리에게만 있는 고유한 향유를 도둑질해가는 '다른 민족'이라는 타자를 상징함으로써 해소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다른 민족의 도둑질이 없다면, 우리의 고유한 것을 향유하는 데 방해물인 타 민족만 없다면 우리가 가진 원래의 향유를 전부 다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적 욕망을 가동시키게 된다. 그러나 원래의 고유한 향유는 본래부터 상실된 것으로서 소유한 적이 없는 것이다. 결국 근대적 민족주의는 전통사회의 내적 균열과 적대의 곤궁을 타 민족의 도둑질 논리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의 산물이다. 또한 이러한 민족주의는 주인이 없는 평등성의 원리로 전개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결핍을 채워줄 것이라는 권위주의적 주인기표(민족)로 기능하게 된다. 이때 주인기표는 위반을 허용함으로써 사로잡는 초자아가 되어 다양성을 하나가 통합하는 보증자 기능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는 대립 관계가 아니라 상호 함축하는 관계이다. 해결의 관점에서 보면, 민족은 공백을 채워 공백의 위험을 피하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민족은 빈 공간을 채우려는 주인기표로서의 이데올로기인데, 이 주인기표는 주인 없음을 보여주는 기표일 뿐이다. 민족적 사물은 자신의 결핍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형태이며, 자신의 이상적 자아의 시선이 자신의 결핍의 응시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언표된 내용과 언표행위의 위치 간의 모순을 다루고 있다. 언표된 내용에 대해서 말하자면, 반식민주의 운동은 물론 그 스스로를 식민지 이전의 뿌리로 회귀한 것이라고, 식민지배자로부터의 문화적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하지만 이런 단언의 바로 그 형식은 이미 식민지장계에서 넘겨받은 것이다. 그것은 서구의 민족국가적 정치적 자율성의 형식이다.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던 국민회의당이 영국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선동되었으며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는 인도 지식인들에 의해 조직되었다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구소련 소수민족 집단들의 민족적 주권에 대한 그 수많은 추구들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체첸이 러시아에 대한 해묵은 투쟁을 환기시키고 있지만, 오늘날 이 투쟁의 형식은 전통적 체첸 사회에 대한 러시아 식민지배의 근대화 효과의 결과물임이 분명하다. [중략] 체첸인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 즉자는 이미 근대화 과정에 의해 매개-정립되어 있는 바, 그로써 그들의 민족적 뿌리는 박탈되고 말았다.

(지젝, 『까다로운 주체』, 이성민 옮김, 409쪽)



-식민주의 지배에 대한 저항을 통한 민족 정체성 형성 :

[자기-폐쇄적인 인종적 의식(타자에 대해 저항하면 자신의 정체성 지키려는 의지가 약한 상태)
→ 식민주의의 강제적 지배 사건 → 식민주의 지배에 대한 반작용 → 강요한 민족적 정체성을 단언하는 능동적 정치적 의지로 변형됨 → 반식민주의 민족해방 운동은 식민주의적 압제에 의해 생성됨 → 민족에 대한 수동적 인종적 의식에서 민족국가의 형태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근대적인 의지로 이동함 → 식민지배자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획득하려는 의지]

☞ 언표된 내용과 언표행위의 위치 간의 모순 : 언표된 내용 = 식민지배자로부터의 정치적 문화적 독립을 주장하는 반식민주의 운동이 식민지 이전의 뿌리로 회귀한 것이라는 주장// 언표행위의 위치 = 이러한 주장의 형식은 이미 식민지배자에게서 넘겨받은 것, 서구의 민족국가의 정치적 자율성의 형식 → 인도 독립을 이끈 국민회의당, 구소련 소수민족 집단들의 민족적

주권 추구양상들, 러시아에 대한 체첸의 투쟁 등

-권력에 대한 저항은 권력 체계의 내속적 동학에 의해 생성된다는 의미에서 내속적이며 내재적이다. 체계의 내속적 적대 그 자체가 체계 자신의 궁극적 몰락으로 이어질 과정을 작동시킬 수 있다.

-체계의 내속적 적대 그 자체가 체계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적대 개념이 푸코에게 없거나 부족하다. 모든 저항은 권력의 체계에 의해 생성된다(‘정립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저항이란 사전에 정해진 것이며 따라서 체계를 심각하게 침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체계 그 자체가 그 내속적 불일치 때문에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그리하여 체계의 통일성과 자기 재생산 능력을 폭파시키는, 과잉적인 어떤 힘을 탄생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고 만다. 즉, 푸코는 원인을 벗어나며 원인보다 더 커지는 어떤 결과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에워싸는 권력’이라는 푸코적 개념을 역전시켜야만 한다. 권력의 메커니즘은 자기 자신조차도 통제할 수 없으며 자신의 바로 심장부에 있는 외설적 돌기에 의존해야만 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권력의 통제력을 유효하게 벗어나는 것은 그것이 지배하려 하는 외적 권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 자체의 작동을 지탱하는 외설적 첨가물이다.

-푸코는 적절한 주체 개념을 결여하고 있다. 주체란 정의상 자신의 원인보다 과도하며, 그런 것으로서 그것은 성욕의 억압을 억압적 조치들 그 자체의 성욕화로 역전시킴과 더불어 출현한다.

- 푸코는 초기부터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두 개의 견해 사이에서 동요해왔다. 다양한 담론들의 산물로서의 광기, 그리고 광기의 담론들로부터의 해방되기 위해 ‘광기가 스스로 말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 그 자체로 존재하며 오로지 이차적으로만 담론의 대상이 되는 어떤 현상으로서의 광기